
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배포일자		2021년 3월 1일(월) 총 3매		
담당 부서	미래산업과	담당 자	• 바이오산업팀장 이규석 ☎440-3101 • 담 당 자 이태섭 ☎440-3103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30 프로젝트 착착 진행

- 셀트리온·삼바 등과 30개 품목 우선 선정, 품목 늘려나갈 것 -
- 올 상반기 바이오 중소·벤처 국내 생산 기업 발굴(공모) 예정 -

■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상공회의소,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인천의 바이오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지역 블록화·독점화 등 자국의 산업보호 강화로 원부자재의 조달이 차질될 것을 우려하여, 바이오 분야 원부자재의 국내 생산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사업화(국산화와 수출산업화),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.

■ 민선7기 인천시는 송도와 남동공단을 잇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 확보,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, 송도 세브란스병원 기공식 등 바이오 분야의 기반을 두루 갖추가고 있다.

○ 이와 함께, 기술과 특허가 중요한 바이오산업의 원천 기술 국산화와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프로젝트도 착착 진행 중이다.

○ 앞서 시는 2019년 12월 인천시,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한국바이오협회 등 9개 기관·기업이 원부자재 국산화 업무협약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한 30개 품목을 선정하고, 2020년 2월부터는 각 기관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.

○ 또한, 2020년 5월 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자금 지원(40%), 정보 지원(31.4%), 기술지원(21.4%) 등이 국산화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.

■ 시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, 인천상공회의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참여 기업을 발굴하는 등 구체적 실행에 나선다.

○ 시는 기업 설문조사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동산단을 포함한 인천의 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 분야 국산화 추진업체를 선정하여 ①국산화 컨설팅 지원과 ②원부자재 생산 기업 제품의 판로개척, ③바이오 수요기업과의 사전 협의 협력, ④생산기업과의 매칭 등을 통해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.

- 참여 기업 공모는 올 상반기 중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예정이다.
- 또한 ⑤바이오 원부자재 디렉토리과 ⑥국내외 산업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, ⑦셀트리온·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최종 수요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국내·외 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.
-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“바이오의약품 분야는 밸류 체인이 상당히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, 수요기업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기는 어려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- 이어 “작년에 유치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올해 본격 설립을 추진한다.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국산화 프로젝트 사업 등을 연계,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인천 바이오 산업 관련 사진